

# 시민 84% “빛고를문학과관 부지 선정 잘못됐다”

## 서정성 시의원 741명 여론조사... 83% “원점 재검토를”

## 강운태 시장 “문학인 공감대 형성 등 4대 원칙 지킬것”

빛고를 문학과관 부지 선정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부지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서정성(민주·남구 2) 의원은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여론조사 기관인 (주)풀인사이트에 의뢰해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741명을 대상으로 빛고를 문학과관 부지선정 관련 여론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60%포인트)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 광주시가 ‘빛고를 문학과관 추진위원회’를 통해 추진해온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해 응답자의 83.5%가 ‘잘못됐다’고 답했다. 특히 ‘입지선정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82.5%에 달했다.

“빛고를 문학과관의 부지선정 기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0.9%가 ‘광주문학의 상징성이 있는 곳’에 건립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49.1%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인접한 곳’을 꼽았다.

또한,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이 가까운 89.2%가 빛고를 문학과관 부지선정 관련해 광주시의회가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정성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 그동안 광주시나 문학인들이 빛고를 문학과관 부지선정 과정에서 시민들과 얼마나 소통하지 못했느냐를 보여주고 있다”며 “광주시민들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빛고를 문학과관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18회 임시회 현안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추진위를 통해 빛고를 문학과관 부지 우선 협상대상을

선정했지만, 여러 절차상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투명한 선정 절차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운태 광주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추진위를 통한 부지선정 방식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입지는 동구로 ▲123억원 예산 범위 내 추진 ▲문학인들의 공감대 형성 ▲부지 감정가격 이하에서 결정 등 4가지 원칙을 지켜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이 4가지를 충족시켜야만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광주의 문학인들이 자체 수습할 능력이 있다고 보지만 문제가 있다면 시장이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순태 칼럼

얼마 전 광주 원로 몇 사람이 천정배 전 장관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박선홍(무등산 공유화재단이사장), 고창현(전 조선대 총장), 정환담(전 전남대 법대학장), 전태갑(전남대 명예교수), 임추섭(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등 모두 12명이었고 필자도 참석을 차지했다.

이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정치 이야기로 시작해서 정치 이야기로 끝이 났다. 모두 5·18 광주항쟁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일부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때문에 분노했다. 시일이 꽤 지났는데도 아직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것은 5·18 광주정신을 왜곡·편향한 것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큰 탓이라.

정당으로 당을 쇄신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안철수 의원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에서 온, 호남인들의 꿈의 대안으로 안철수 의원한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연 그가 답답하게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미지수라 하는 것이다. 하지만 5·18 때 광주에 와서 “기성 정치인들은 5·18 정신의 열매만 따 먹었을 뿐이다” 발언에는 공감했다.

반 의원이 최근 진보의 상징인 최장집 교수 중심의 싱크탱크를 출범한 것은 신당 창당을 향해 한걸음 내딛는 것으로, 신당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 쪽에 최장집 교수, 경제 쪽에 장하성 교수를 세팅하여 새 정치의 색깔을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짐작된다. 아무튼, 싱크탱크 출범을 계기로 안철수 현상이 부활할 소지가 있어 민주당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 광주 원로들의 정치생각

강 시장은 지난달 30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왜곡에 대한 민주당 문화에 참석하여 앞으로 이에 대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세력들이 종편에 탈북자를 출신시켜 5·18 정신을 왜곡시키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본다. 국민의 지탄이 커지자 마치 못해 슬그머니 사과를 했으나 이대로 끝낼 일이 아니다.

종편 제작자들은 5·18 묘지에 와서 영령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마땅하다.

이야기는 김한길 체제의 민주당으로 옮겨갔다. 화제의 초점은 김한길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분절된 계파를 극복하고 당을 개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최근 김 대표의 행보가 눈에 띄게 우편향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의도적으로 진보를 멀리하려는 성향이 짙어 보인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했으나, 과연 진보를 의면한 민주당에 을의 정신이 있거나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김 대표가 안철수 의원에 대해 ‘합력자’에서 ‘경쟁자’로 태도를 바꾸고, “안 의원이 신당을 창당하면 새누리당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것은 불안감이나 위기감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 같아 개운치 않다.

김 대표는 안 의원에 대한 경쟁심보다는 민주당 내 기록권을 제압하고, 수권

획자들은 노동자 중심의 진보를 내세운 최 교수와 중도 성향의 안 의원 간의 이념적 노선이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물론 안 의원의 스태프가 어디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안 의원의 중도개혁성향과 최 교수의 진보성향의 융합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안 의원이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 그리고 최 교수가 민주당과 진보당 사이로 포지셔닝이 이루어진다면, 서로 융합하여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분야권을 통째로 아우를 수 있고, 이념의 벽을 허무는 새로운 정치 지평을 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시장이요, 도지사요, 아니면 국회의원이요?” 누구인가 천정배 전 장관에게 딱봐도 물었다. 천 장관이 지난 4월 광주에 방문할 때 해마루 광주분소를 낸 연유를 묻고 있는 것이었다.

천 전 장관은 민주당 텃밭이며 5·18 정신이 깃든 광주에서, 더 공부하고 자신을 다져가면서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를 이루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러 왔다고 대답했다.

이날 결론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진보는 강그리 죽고 보수만 살아서 온통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다는 우려였다. 지금 호남인들은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 새로운 희망을 기다리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호남의 인물을 호남 스스로 키워야 한다는 것에 입을 모았다. <소설가>



“민주주의 전당 광주에 단독 유치돼야” ‘한국민주주의 전당’ 광주 단독 유치를 위한 대책회의가 4일 오후 광주 시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검토중인 서울 남산 옛 중앙정보부 건물을 활용하는 안과 광주, 서울, 마산 등 3개 지역으로 분산해 건립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제공>

## “남구청사 이전 관련 유언비어 사실 아닙니다”

### 광주시, 간부 등에 적극 대처 당부

### 남구청, 이전과정 소개 전단지 배포

광주시와 남구청이 ‘남구 신청사 백운동 이전’을 둘러싼 유언비어로 행정의 신뢰도 추락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 남구청은 최근 ‘청사 이전은 이렇게’라는 제목의 남구청사 이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전단지를 제작했다. 남구청은 이 전단지를 통해 최영호 남구청장이 지난 2011년 남구청사 이전을 위해 홍릉로 방치된 백운동광장내 옛 화니백화점 건물을 소유주인 미국 클리어워터사의 자회사인 파니베스트먼트사로부터 105억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남구청(자치단

체)이 사들이 이 건물에 360억원의 개발사업비를 투자해 지하 6층~지상 9층을 리모델링하고 22년간 임대해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임대수익을 위한 상가 및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나머지 지엔 남구청이 입주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치단체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이번 남구청이 첫 사례로, 자치단체가 보유중인 토지나 건물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한 뒤 장기간 임대수익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자치단체는 초기 예산부담 없이 건물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남구청이 백운동광장에 있는 옛 화니백화점 건물로 청사를 옮긴 후부터 “남구청사 건물이 강 시장 처가 건물이다”, “강 시장이 측근(강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인 최영호 남구청장)을 시켜 남구청사를 처가 건물로 옮겼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확산하기 시작했다.

특히 강 시장의 부인이 옛 화니백화점의 창업주 셋째딸이란 점까지 맞물리면서 일부에선 이 같은 유언비어가 기정사실화됐다.

사실 백운동광장내 옛 화니백화점 건물은 지난 1999년 화니 일가의 소유권이 상실되면서 14년 동안 모두 6차례나 소유권이 변동됐고, 지난 2007년 미국계 퍼니인베스트먼트사가 경매로 250억원에 낙찰받은 것을, 남구청이 105억원에 매입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유언비어가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되면서 행정의 신뢰도마저 추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강운태 시장은 지난 3일 6월 정례회를 마친 뒤 시 간부와 공사·공단 임원들에게 남구청사 이전에 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유언비어에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 기념사업·기록관 설치

### 5·18 조례 3건 발의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이 도를 넘어선 가운데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 조례안’ 등 5·18 관련 조례 3건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춘문(무·서구 1) 의원 등 7명의 시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5·18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을 비롯한, 역사적 진실규명, 기록물 및 자료 정리·보존·전시, 교육·학술·문화사업 지원, 5월 정신의 전교회·세계화 사업 등 5월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춘문 의원은 “33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 극우보수측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하하고 있는 만큼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방향이 필요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도 이번 임시회에 ‘광주시 5·18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했다.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세계 인류의 유산이 된 만큼 이를 영구보존하고 전시에 역사적 의미를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의 조례다.

이 조례안에는 기록관의 업무 및 운영에서부터 추진기획단 설치 근거 규정 등이 포함됐다.

광주시 5·18 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 상정돼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삼희공인중개사

### 모든부동산 급매매

급매처분상담  
경매  
공매  
압류  
미준공건물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는  
부동산 말소와  
동시에 일괄매입

### 매수자 상담환영

법률/금융상담 동구 불로동 삼희빌딩 3층  
234-1199 / 010-8730-3340  
신뢰할 안내자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 신한공인중개사

### 신축 원룸 매매 전문

- ★북구 전대 상대·농대 1분, 신축 4층, 톨,147개(주택임) 월수익 500만, 매가 5억 9천만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 ★북구 전대 정문 1분, 신축 4층, 톨, 16개 (주택 40평) 월수익 750만, 매가 8억 4천만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 ★북구 전대 정문 1분, 신축 4층, 톨, 21개 (주택전환) 월수익 750만, 매가 8억 8천만 (엘리베이터,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 ★서구 쌍촌동 운전역 2분, 신축 3층, 톨, 87개(주택임) 월수익 280만, 매가 5억 2천만 2천, 용 1억 2천)
- ★서구 쌍촌동 신축 4층, 원·투룸 147개 (주택임) 매가 6억 9천만
- ★북구 삼각동 신축 4층, 원·투룸 11개 (주택임) 코너, 최고 위치 월수익 330만 (보 2500만, 용 1억 2천) 매가 15억 5천만

상가매매  
☆상가 임대 1층, 수원지구, 대방 5차 후문 59㎡ (보 3천, 월 130만) 모든업종가능  
☆상가 임대 3층, 수원지구, 모야엘가APT 150㎡ (보 1천, 월 90만) 즉시입주, 시비없음  
☆상가매매 1층, 수원지구 죽미데, 영화관 300세대 대방 5차 APT 후문 59㎡ 매가 3억 6천, 임대중 (보 3천, 월 150만)  
☆상가 매매 1층, 수원지구 신현은행 뒤 300세대 모야엘가 APT 후문 3층 280㎡ 매가 3억 2천 (보 2천만, 월 200만, 용 2억 5천만) 학원, 병원, 사무실적합  
☆상가매매 1층 4칸, 수원지구 대방 1차 APT정문 대지 304㎡ 매가 6억 3천 (보 8천만, 월 360만, 용 2억 5천만)  
☆상가매매 1층, 수원지구 대성베르힐 대지 304㎡ 매가 7억 (보 1억 3천만, 용 4억)

독서실 급 임대  
수원지구 3천세대 모야엘가APT 앞 2층, 총 91석 신축, 최신식 시설, 최고위치 (보 5천만, 월 250만, 시비약간있음)

상담 문의  
☎062)527-7600  
H.P. 010-6670-9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국민은행 LG전자빌)

## 부동산 성공 투자

### 하늘땅 공인중개사가 함께합니다

- 상가건물  
▷첨단 중심상권 2층건물 매매 18억(보 1.5억) 월 910만 수익  
▷월산동 일반상업지역 6층건물 매 14.7억  
▷동천동 공장·창고 임대(대 1300㎡, 건 400㎡) 보 2천 월 3백만
- 대지/전답  
▷담양군 금성면 토지 5,500㎡(1,670평) 개발허가,기반 시설 완비  
▷나주시 평산동 446-7 일대 배과수원 13,727㎡(4,150평) 매매가 협의  
▷장성군 삼계면 대지 외 4130㎡(1,250평) 1.7억  
▷장흥군 장평면 천원주택(660㎡, 전 13,165㎡ 포함) 3.5억  
▷신창동 창고용지(생산지) 1980㎡(600평) 매매가 협의  
▷수원지구 원룸부지 323㎡(98평)
- 수익형 구분점포  
▷첨단 메인대로변 구분점포 150㎡ 매매 8.5억  
▷첨단 중심대로변 복층 가능 1.2층 점포 400㎡, 710㎡ 임대  
▷첨단 중심대로변 1층 상가 578㎡(175평) 임대 보 10억 월 1,200만  
▷첨단 메인상권 1층 구분상가 370㎡ 매매 35억(임대개)
-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물건 검색 환영합니다.●
-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62)973-0045 010-5536-0382

## 급매매

-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 10-3215-9969

## 임대

-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기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 366평  
건물 207평  
1층 92평  
2층 72평  
시설완벽!  
권리금 없음  
모든업종가능
- 010-3701-4767

## 중랑공인중개사

### 건물매매

- 총장로 총장  
파출소 인근  
대지 700㎡  
건물 3,000㎡  
매매가  
상담후 결정  
대형 브랜드 매장 적합
- 대지/전.답  
서구 세하동  
2차선 도로점  
주거지역  
답 12,522㎡(763평)  
매매가 평당 150만원  
(물류창고 공장 적합)
- 전원주택지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  
한재골 입구 저수지 위  
전망 아주 좋음  
대지 1,333㎡(약 403평)  
매매가 평당 65만원
- 062-374-5945  
010-3162-4989

## 동원공인중개사

### (상무지구 전문)

- 상가건물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7층) 보 5.5억, 월 3500만 매 46억 원  
★상무지구 중심상업지(5층) 보 3억, 월 2500만 매 39억 원  
★상무지구 중심상업지(3층) 보 3억 원, 월 1200만 매 23억 원  
★상무지구 중심상업지(5층) 보 5억, 월 4100만 매 80억 원  
★광산구 수완지구(5층) 보 2억 원, 월 1390만 매 27억 원  
★광산구 신창동(5층) 보 2억, 월 1040만 매 19억 원
- 대지/답  
★금호동 계획도로점 자연녹지 3,400㎡ 매 31억 원 (병원,시육,점례예측지)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960㎡ 매 36억 원(병원,시육)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408㎡ 매 8억 5천 원(식당,유흥노래방)  
★치평동 광송간도로 395㎡ 매 14억 원(병원,시육,전시점)  
★마북동생산지 도로점 895㎡ 매 7.1억 원(식당,시육)  
★쌍촌동 운전역부근 상업지 845㎡ 매 2.7억 (시육,전시점,병원,도시형)  
★세종시 중심상업지 1715㎡ 매 16.2억 원(상 2층) 분양투자준비  
★상가건물, 내차지 급구
- ☎062-381-6001  
010-3753-0033